



“서비스콜센터” 운영 개선

- 기존 전화번호 1566-4455를 070-7094-3333으로 변경 -

8월 1일부터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전국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서비스콜센터’ 운영방식을 공중파전화 시스템에서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변경한다.

공단이 이번에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공중파운영방식이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해당 부서나 지부로 직접 연결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그 동안 고객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서비스콜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홍보와 더불어,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존 전화 번호(1566-4455)도 8월 한 달 동안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선박안전정보시스템(SIS)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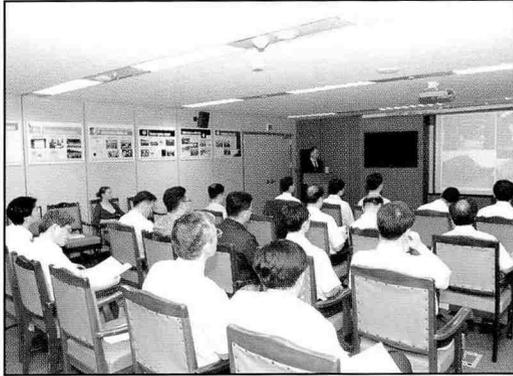
지난 7월 16일 선박안전정보시스템(SIS)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공단이 추진하는 선박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선박검사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웹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선박검사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을 통한 고도화와 함께 지금까지 선박검사 후 검사보고서를 사무실내에서만 작성하던 것을 검사현장 등 사무실 외에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검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이번 선박안전정보시스템(SIS) 구축을 계기로 향후 선박 검사 관련 각종 정보를 고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상레이저선박 관련 외국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 해외전문가인 Dean Margetts의 강연 모습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호주의 레이저선박 설계 및 모델개발 전문가인 Dean Margetts을 초빙하여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레이저선박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공단이 이번에 강연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전남도와 체결한 「해양레이저 활성화를 위한 레이저보트산업 지역 혁신체계 구축사업(서남권RIS)」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남권 지역에 소재한 조선소, 설계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상레이저선박의 목형 및 몰드성형

기술, 제품개발기술 등 설계 및 제작 관련 기술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레이저선박 관련 기술의 질적향상과 안정성 확보는 물론, 수상레이저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공단은 지난 7월 10일 ‘국내외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조성해온 선박 관련 국내외 기관, 연구소 및 학계와의 기술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교류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술교류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그 동안 추진해온 각 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상호 인력교환사업과 알제리 KOICA사업 수임 및 전남도청과의 지역혁신체계구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져진 선박안전 관련 전문기술단체로서의 굳건한 입지를 토대로 향후 국제적으로는 공단의 IMO관련 활동 및 아국선박의 항만국통제(PSC)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각 국과의 선박검사제도를 교류함으로써 선박검사기관으로서 공단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관련 연구소 및 기관과의 선박안전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교류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